

## 일 대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 유형

오 원 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그 생성과 소멸의 속도는 빨라지며 인간의 삶 자체가 정보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이다. 때문에 한 번 배운 지식, 정보, 기술의 효용 기간도 단축되어 기존에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제품화된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미래의 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더욱 필요로 되고 있다(Choi, 1999; Kim, 1999; Kim, 2000).

특히 의료환경은 하루 하루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간호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담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실무 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스스로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Lunyk-Child, Crooks, Ellis & Ofosu, 2001; Majumdar, 1999).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교사의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스스로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일에서부터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인적·물적 자원을 밝혀내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적용시키며 그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 및 인성적 특성을 일컫는다(Ceffarella & O'Donnel, 1989; Knowles, 1975; 1990).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들의 대표적 학습 특성으로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학습상황에 참여하며 다양한 생활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목표하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고 하였다(Bonham, 1989; Candy, 1991; Knowles, 1975; Mezirow, 1981).

종래의 전통적인 의미의 학습이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학습이라면 자기주도 학습은 수요자 중심의 개방적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폐쇄적 학습체계에서는 모든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 평가 기준등이 미리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로 구조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학습자에 의해서 스스로 학습이 결정되고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 ohwo@dongguk.ac.kr)

투고일: 2002년 8월 26일 심사회의일: 2002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2002년 11월 28일

그 결정의 기초를 학습자 개인의 가치, 욕구, 선호도에 두는, 즉 비교적 비구조화된 개방적 학습형태이다. 개방적인 자기주도 학습 체제하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가 기존의 '지시하고 따르는'식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수용적 학습보다는 창의적 학습이 더욱 요구된다(Bower, 1979).

그러므로 자기주도 학습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간호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비판적인 사고, 평생 지속적인 학습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켜 줄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처를 확인하고 주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Fisher, King, & Tague., 2001; Majumdar, 1999; Moore, Kuhri, Kuhri, & Katz, 1996).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국내 간호계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실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 들어서는 간호 학생들과 실무 간호사들의 문제해결 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나 근거중심 학습(Evidence Based Learning: EBN)과 같은 학습유형들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학습방법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어서, 자기주도학습이 간호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증진과 이를 근거로 한 학습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각 개인의 다양한 가치, 욕구, 선호도이나 고유한 주관성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관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주관적 행위, 즉 행위자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 유형을 분류하

고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사가 실무현장에서 수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간호사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기틀의 제시와 자기주도성 촉진을 위한 학습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태도, 가치, 신념)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확인하고 유형화한다.
- 2)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기술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 연구절차

#### 1) Q-모집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그리고 개별면담을 수행하였다. 개별면담과 개방형 질문지의 작성은 임상 실무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 중 간호부의 교육관련 행정자 2인, 수간호사 3인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학원 또는 RN-BSN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간호사 6명의 총 11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개별 면담시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초기 질문은 Fisher, King과 Tague(2001)이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 영역으로 제시한 학습자의 태도, 능력, 개인적 특성 및 학습과정 영역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즉 '실무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을 위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학습자가 갖추

어야 할 기본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149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Table 1> Q-statement

Item	Statement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2.	It is important to learn basic competency promoting for my practice quality.
3.	When I meet some problem, I make an effort to find out a problem solving way.
4.	I'm active in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opportunities.
5.	I must learn new skill every year.
6.	I have learning desire.
7.	I prefer to set my own learning goals and plan.
8.	If I want to learn about something, I effort to find out them and learn.
9.	I enjoy studying something new.
10.	I like to resolve a problem through my style.
11.	I prefer to involve in deciding a learning method and content in group study.
12.	I am wholly responsible for my own learning.
13.	I think that 24 hours a day is very short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much.
14.	I have a clear goal and motive in my learning.
15.	I need to be open to new information and ideas.
16.	Continue learning attitude is important to be a leader.
17.	I set a plan step by step about learning content in practice.
18.	I check my own learning and make a list before studying, and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list.
19.	I often evaluate my own practice for my study.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21.	I need to learn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22.	I always recognize that there is a field I don't know.
23.	I attention carefully to my companion's advice about my performances.
24.	I must to ask for help when necessary.
25.	I am not satisfy with my education level.
26.	I am stimulated to study by my companion studying.
27.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my limitation is.
28.	I set specific times for my study every day.
29.	I exchange my information with my companions.
30.	I front for my study with attitude of preparing my future.
31.	I use actively internet as a information gathering method.
32.	I go to library for my study periodically.
33.	I must study continuously if I want to be a specialist in my field.
34.	I resolve my problem through assistance of experienced seniors or companions.
35.	It is important to search deeply for presented problem.
36.	It is important to study about not only my field but also multi aspects.
37.	I make a file or summary book after study.
38.	It is important to study linking to practice and theory.
39.	I study with my companions promoting study atmosphere.
40.	I'm interested in my related field.
41.	I previously study about learning topic before I participated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42.	I need to set up my long term learning plan.
43.	I must control my time well for my own study.

2) Q-표본의 확정

위에서 수집한 149개의 Q-모집단의 진술문에서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기 위해 각 진술문들을 자세히 반복하여 읽고 범주화 카드에 분류한 결과 56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다시 이 56개의 진술문 중 의미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8개의 진술문을 통합하여 48개의 Q-표본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48개의 진술문을 간호학 관련 교수 2인과 간호학 박사과정생 2인의 자문을 구하여 추상성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는 진술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3개의 Q-표본 진술문을 확정하였다(Table 1).

3) P-표본의 선정 및 Q-표본 분류와 방법

연구 대상자가 되는 P-표본의 선정은 D 대학 부속 2개 종합병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상 경력 1년 이상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체로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크기는 40 ± 20명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는데(Kim, 1992),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4명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43개 Q-표본의 진술문을 5×3 cm의 개별 카드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각 카드에는 1에서 43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P-표본 대상자에게 각 카드를 읽은 후 Q-분류의 분포가 강제 정상 분포되도록 하였다. P-표본 대상자가 Q-분류를 완성한 직후 개별면담을 통하여 일반적 특성과 자기 주도학습 유형과 관련된 개별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Q-분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재확인하였고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 부언할 내용에 대해 면담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류된 43개의 항목에 -4에서 +4까지의 점수를 주어 입력한 후 43개의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하였다. 다시 43개의 항목을 P-표본을 축으로하는 주요인분석방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에서 10까지 다

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에서 Eigen Value가 1.0이상이면서,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요인마다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요인수를 선정한 후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 유형의 형성

간호사들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I이 35.59%, 유형 II가 7.48%, 유형 III이 5.89% 그리고 유형 IV가 5.06%로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 54.02%로 나타났다. 이들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Table 2, 3).

<Table 2> Eigen value and total variance of typ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12.10	2.54	2.00	1.72
Variance	.3559	.0748	.0589	.0506
Cummulative	.3559	.4307	.4896	.5402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ach types

Type	I	II	III	IV
I	1.000			
II	.458	1.000		
III	.504	.472	1.000	
IV	.400	.464	.422	1.000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연구대상 P-표본 34명 중 유형 I에 8명, 유형 II에 12명, 유형 III에 8명, 유형 IV에 6명이 포함되었고, 각 유형 내에서 요인 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2.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 유형 특성 분석

각 유형별 43개 항목의 표준 점수, 요인 가중치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의

(Table 4) Variable assignments with factor weights by typ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ype	Var	Age	Education	Work place	Marital status	Factor weight
I	6	25	College	PED	Unmarried	.6610
	9	25	College	NUR	Unmarried	.5120
	11	25	University	GS	Unmarried	.7285
	12	33	College	GS	Unmarried	1.1658
	13	35	University	GS	Married	.2357
	22	28	College	NUR	Unmarried	.4863
	27	26	College	MICU	Unmarried	.4289
	30	23	University	MICU	Unmarried	.3448
II	2	28	College	OBGY	Unmarried	.6708
	4	28	College	GS	Unmarried	1.0663
	7	40	College	NUR	Married	.9189
	10	34	University	Ped	Married	1.2634
	18	37	Master	CSR	Married	.3009
	19	32	University	CSR	Married	.3463
	21	32	College	IM	Unmarried	.3359
	25	25	University	MICU	Unmarried	.5574
	26	27	University	MICU	Unmarried	.3111
	29	37	Master	SICU	Unmarried	.4052
	32	30	College	MICU	Married	.4235
	33	26	College	SICU	Unmarried	.4662
III	3	26	College	OBGY	Unmarried	.4330
	8	25	University	NUR	Unmarried	.7546
	15	28	College	NUR	Unmarried	.4850
	16	27	College	NUR	Married	1.0419
	20	26	College	NUR	Unmarried	.5064
	28	36	University	SICU	Married	.3498
	31	28	College	MICU	Unmarried	.4931
	34	27	University	ER	Unmarried	.1293
IV	1	39	Master	PED	Married	.2066
	5	26	University	OBGY	Unmarried	.4722
	14	36	Master	GS	Unmarried	.2449
	17	26	University	CS	Unmarried	.4089
	23	26	College	MICU	Unmarried	1.9949
	24	26	College	MICU	Unmarried	.7727

각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43개의 항목 중 유형별로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표준 점수가 +1.000이상인 항목)과 강한 비동의(표준점수가 -1.000이하인 항목)를 보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강한 동의 항목 중 표준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가 큰 항목, 강하게 동의하지는 않으나 표준 점수가 타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중 표준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가 큰 항목, 강한 비동의를 보이지는 않으나 표준 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가 큰 항목을 Q-분류 자료

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전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마다 P-표본 중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강하게 동의한 항목(+4, +3)과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항목(-4, -3)을 분석하면서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였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유형별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 명명하였다.

1) 제 I 유형 : 미래 대비형

제 I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유형 I 에 속한 대상자는 34명

중 8명이었으며, 간호사의 연령은 20대가 6명, 30대가 2명이었다. 간호사의 학력은 초대졸이 5명, 대졸이 3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일반외과가 3명, 신생아실과 내과 중환자실이 각 2명 그리고 소아과가 1명이었다. 결혼상태는 1명만 기혼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혼이었다.

제 I 유형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의 공부 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한다' 등의 9개 항목이었다. 반대로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단체학습을 할 때 배우는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 '직장 동

료들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공부한다', '실무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업계획을 세운다', '하루 중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을 잘 해 놓는다' 등의 7개 항목이었다(Table 5).

제 I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도 '나의 공부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한다',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나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한다' 등의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 중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동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학업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 요약집을 만들거나 철해둔다' 등

<Table 5> Z-score of each item describing Type I : Future Provision Type

Item	Statement	Z-score
33.	I must study continuously if I want to be a specialist in my field.	2.04
16.	Continue learning attitude is important to be a leader.	1.65
42.	I need to set up my long term learning plan.	1.48
30.	I front for my study with attitude of preparing my future.	1.48
41.	I previously study about learning topic before I participated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1.35
43.	I must control my time well for my own study.	1.17
21.	I need to learn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1.14
27.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my limitation is.	1.03
38.	It is important to study linking to practice and theory.	1.02
11.	I prefer to involve in deciding a learning method and content in group study.	-1.02
39.	I study with my companions promoting study atmosphere.	-1.15
17.	I set a plan step by step about learning content in practice.	-1.20
28.	I set specific times for my study every day.	-1.32
18.	I check my own learning and make a list before studying, and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list.	-1.36
37.	I make a file or summary book after study.	-1.46
13.	I think that 24 hours a day is very short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much.	-1.54

<Table 6> Type I items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

item	Statement	Z-score	Average or nearest Z	Difference
42.	I need to set up my long term learning plan.	1.170	-0.603	1.774
30.	I front for my study with attitude of preparing my future.	0.877	-0.422	1.298
12.	I am wholly responsible for my own learning.	1.478	0.229	1.249
33.	I must study continuously if I want to be a specialist in my field.	1.650	0.543	1.107
38.	It is important to study linking to practice and theory.	1.479	0.388	1.091
6.	I have learning desire.	-0.538	-0.590	-1.129
26.	I am stimulated to study by my companion studying.	-0.446	0.732	-1.178
37.	I make a file or summary book after study.	-1.459	-0.023	-1.437

의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6).

제 I 유형의 전형인 12번 대상자가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와 '배우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나의 공부 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비동의 항목으로 나타난 항목은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 요약집을 만들거나 철해둔다', '단체 학습을 할 때 배우는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한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한다'등의 항목이었다. 제 I 유형의 전형은 일반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경력 10년의 간호사로 초대졸을 졸업하고 현재 RN-BSN 과정중에 재학하고 있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대상자였다.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하면서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실무를 따라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고 또한 자신보다 최신 학문으로 공부한 후배들이 입사함에 따라 자신은 더욱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자신을 이제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목표와 그에 따른 학업의 준비가 필요하며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통해볼 때 제 I 유형은 간호 실무자로서

의 전문적 성장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미래 대비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II 유형 : 학습 열정형

제 II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유형 II 에 속한 대상자는 34명 중 12명이었으며, 간호사의 연령은 20대가 5명, 30대가 6명, 40대가 1명이었다. 간호사의 학력은 초대졸이 6명, 대졸이 4명 그리고 대학원 졸업이 2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산부인과, 일반외과, 신생아실, 소아과 및 내과가 각 1명씩이고, 외과 중환자실과 중앙공급실이 각 2명씩, 그리고 내과 중환자실이 3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명 기혼이 5명었다.

제 II 유형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배워야 한다',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나 자신의 학습목표와 계획은 내가 세운다',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찾아서 배우려고 애쓴다',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것을 즐긴다', '나에게 주어진 교육이나 연수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론과 실무를 연계시켜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등의 10개 항목이었다. 반대로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현재 나의 학업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 '하루 중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을 정해놓는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비판

<Table 7> Z-score of each item describing Type II : Learning Passion Type

Item	Statement	Z-score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1.90
6.	I have learning desire.	1.39
7.	I prefer to set my own learning goals and plan.	1.38
8.	If I want to learn about something, I effort to find out them and learn.	1.29
9.	I enjoy studying something new.	1.29
4.	I'm active in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opportunities.	1.18
38.	It is important to study linking to practice and theory.	1.12
2.	It is important to learn basic competency promoting for my practice quality.	1.11
33.	I must study continuously if I want to be a specialist in my field.	1.09
12.	I am wholly responsible for my own learning.	1.00
25.	I am not satisfy with my education level.	-1.17
32.	I go to library for my study periodically.	-1.40
28.	I set specific times for my study every day.	-1.55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1.65
10.	I like to resolve a problem through my style.	-1.87
20.	I think that 24 hours a day is very short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much.	-2.55

적으로 평가한다'등의 6개 항목이었다(Table 7).

제 II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도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찾아서 배우려고 애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배워야 한다',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나 자신의 학습 목표와 계획은 내가 세운다'등의 6개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에서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문제를 내 방식대로 혼자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방법을 적극활용한다' 등의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8).

제 II 유형의 전형인 10번 대상자가 동의를 보인 항목은 '나에게 주어진 교육이나 연수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론과 실무를 연계 시켜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 '전공분야 이외의 다방면의 학습이 중요하다'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비동의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를 내방식대로 혼자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등의 항목이었다. 제 II 유형의 전형은 소아과 병동에 근무하는 경력 11년의 간호사로 초대를 졸업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현재 대학원 재학 중에 있는 대상자이다. 이 대상자는 처음 병원에 들어와서는 학부과정에서 배운 지식들이 매우 막연하기만 하였는데 실무를 수행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여 공부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주변의 선배나 학습자료등을 이용하여 찾아보게 되고 병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연수나 교육의 기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실무능력의 향상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상을 통해볼 때 제 II 유형은 실무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며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 가는 것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짐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이 촉진되는 유형으로 '학습 열정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 III 유형 : 자아 성찰형

제 III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제 III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34명 중 8명이었으며, 간호사의 연령은 20대가 7명, 30대가 1명이었다. 간호사의 학력은 초대졸이 5명, 대졸이 3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산부인과, 외과중환자실, 내과중환자실, 응급실이 각 1명씩이었고, 신생아실이 4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명 기혼이 2명이었다. 제 III 유형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항상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의 제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나의 학습을 위해 종종 나의 업무수행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뚜렷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학습한다'등의 8개 항목이었다. 반대로 강한 비동의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학습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결정해야될

<Table 8> Type II items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

item	Statement	Z-score	Average or nearest Z	Difference
8.	If I want to learn about something, I effort to find out them and learn.	1.286	-0.433	1.719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1.900	0.203	1.698
6.	I have learning desire.	1.386	-0.051	1.437
7.	I prefer to set my own learning goals and plan.	1.384	0.163	1.221
17.	I set a plan step by step about learning content in practice.	0.043	-1.093	1.136
4.	I'm active in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opportunities.	1.114	-0.015	1.130
10.	I like to resolve a problem through my style.	-1.875	0.690	-1.175
43.	I must control my time well for my own study.	-0.264	0.969	-1.234
31.	I use actively internet as a information gathering.	-0.810	0.531	-1.341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2.500	-1.078	-1.472
25.	I am not satisfy with my education level.	-1.168	0.837	-2.005



사항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 학습한다',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때는 주제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임한다', '실무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학업계획을 세운다' 등의 8개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9).

제 III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도 '현재 나의 학습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의 3개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 중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찾아서 배우려고 애쓴다', '직장 동료들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공부한다'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10).

제 III 유형의 전형인 16번 대상자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현재 나의 학습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의 제한점이 무엇인지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학습을 위해 종종 나의 업무수행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비동의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하루 중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을 정해 놓는다',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찾아서 배우려고 애쓴다' 등의 항목이었다. 제 III 유형의 전형은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경력 3년의 간호사로 초대졸을 졸업한 간호사이다. 이 대상자는 면담 중 간호실무에서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아성찰'이라고 강하게 언급하였다. 즉, 자신의 제한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실무 능력과 지식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이 자극될 수 있다고

<Table 9> Z-score of each item describing Type III : Self-Reflective Type

Item	Statement	Z-score
22.	I always recognize that there is a field I don't know.	1.71
27.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my limitation is.	1.63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1.48
19.	I often evaluate my own practice for my study.	1.38
14.	I have a clear goal and motive in my learning.	1.29
26.	I am stimulated to study by my companion studying.	1.25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1.21
15.	I need to be open to new information and ideas.	1.15
18.	I check my own learning and make a list before studying, and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list.	-1.09
41.	I previously study about learning topic before I participated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1.28
17.	I set a plan step by step about learning content in practice.	-1.28
11.	I check my own learning and make a list before studying, and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list.	-1.42
32.	I go to library for my study periodically.	-1.60
39.	I study with my companions promoting study atmosphere.	-1.66
28.	I set specific times for my study every day.	-1.90
13.	I think that 24 hours a day is very short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much.	-1.95

<Table 10> Type III items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

item	Statement	Z-score	Average or nearest Z	Difference
25.	I am not satisfy with my education level.	1.630	-0.096	1.726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0.392	-1.798	1.406
31.	I use actively internet as a information gathering.	1.149	-0.122	1.272
8.	If I want to learn about something, I effort to find out them and learn.	-0.773	0.253	-1.026
39.	I study with my companions promoting study atmosphere.	-0.898	0.233	-1.131

하였다.

이상을 통해볼 때 제 III 유형은 자신 및 자신의 실무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자아 성찰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 IV 유형 : 동료 동반자형

제 IV 유형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제 IV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34명 중 6명이었으며, 간호사의 연령은 20대가 4명, 30대가 2명이었다. 간호사의 학력은 초대졸이 2명, 대졸이 2명 그리고 대학원 졸업이 2명이었다. 근무부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가 각 1명씩이었고 내과 중환자실이 2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명, 기혼이 1명이었다.

제 IV 유형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직장 동료들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공부한다', '필요하다면 나의 학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실무 활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동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학업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등의 8개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 중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배워야 한다', '나의 실무와 연관되는 관련분야에도 관심을

갖는다', '나의 공부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때는 주제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임한다' 등의 8개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11).

제 IV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도 '나의 실무 활동을 위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필요하다면 나의 학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 '동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학업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 등의 7개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 중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한다', '나의 공부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마다 몇 가지씩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한다' 등의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12).

제 IV 유형의 전형인 23번 대상자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필요하다면 나의 학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실무 활동을 위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동료들과 새로운 정보를 교환한다' 등의 항목이었고, 비동의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문제를 내 방식대로 혼자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이었다. 제 IV 유형의 전

<Table 11> Z-score of each item describing Type IV : Accompanying Companion Type

Item	Statement	Z-score
39.	I study with my companions promoting study atmosphere.	2.17
24.	I must to ask for help when necessary.	1.77
23.	I attention carefully to my companion's advice about my performances.	1.45
26.	I am stimulated to study by my companion studying.	1.35
29.	I exchange my information with my companions.	1.18
43.	I must control my time well for my own study.	1.16
33.	I must study continuously if I want to be a specialist in my field.	1.11
21.	I need to learn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1.09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1.00
40.	I'm interested in my related field.	-1.00
42.	I need to set up my long term learning plan.	-1.05
41.	I previously study about learning topic before I participated in organizational education or training.	-1.07
28.	I set specific times for my study every day.	-1.42
5.	I must learn new skill every year.	-1.61
13.	I think that 24 hours a day is very short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much.	-2.22
20.	I critically evaluated something new.	-2.26

<Table 12> Type IV items greater and less than all others

item	Statement	Z-score	Average or nearest Z	Difference
23.	I attention carefully to my companion's advice about my performances.	0.450	-1.014	1.463
24.	I must to ask for help when necessary.	1.175	0.352	1.423
26.	I am stimulated to study by my companion studying.	2.170	0.949	1.221
16.	Continue learning attitude is important to be a leader.	1.348	0.134	1.214
32.	I go to library for my study periodically.	-0.503	-1.713	1.209
23.	I attention carefully to my companion's advice about my performances.	1.449	0.301	1.148
35.	It is important to search deeply for presented problem.	1.158	0.143	1.015
30.	I front for my study with attitude of preparing my future.	-0.977	0.196	-1.173
42.	I need to set up my long term learning plan.	-1.046	0.135	-1.181
5.	I must learn new skill every year.	-1.608	-0.389	-1.218
40.	I'm interested in my related field.	-1.002	0.409	-1.412
12.	I am wholly responsible for my own learning.	-0.749	0.971	-1.720
1.	I must learn as long as I live.	-0.997	1.169	-2.166

형은 내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력 3년의 간호사로 초대졸을 졸업한 간호사이다. 이 대상자는 신규 간호사 시절에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회동을 통한 정보교환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였다고 말하며 새로운 정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어 알아보고 다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동에서 동료 간호사의 RN-BSN과정이나 대학원 진학 등은 자신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자극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을 통해볼 때 제 IV 유형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이 동료와의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도와주고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동료 동반자형'으로 명명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규 대학 교육과정 후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은 자신의 주관적인 태도와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자기주도 학습은 4개의 독립적인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I 유형은 '미래 대비형'으로 이 유형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간호업무가 점차 세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조직내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학습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 간호계도 점차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일선 및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기본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 졸업후에도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흐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Gugliemino(1977)도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면서, '자기이해', '학습의 주도권',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등을 자기주도 학습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평생 학습자라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을 문제가 아닌 도전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미래지향적인 자기이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학습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에 솔선수범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배우는 것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학습계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미래 대비형'의 간호사에게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근거한 학습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실무교육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제 II 유형은 '학습열정형'으로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며 실무에서 하나 하나 배워가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수나 교육 기회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Gugliemino(1977) 역시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준비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면서 '나는 새롭게 무언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나는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나 새로운 것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배우는 일은 재미있다' 등의 항목을 요인화하여 이를 '학습에 대한 애착'으로 명명한 바 있다. You(1997)도 성인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관련 요인을 분석하면서 대상자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중 '학습에 대한 애착' 영역 항목들의 점수가 높아,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과 애착이 자기주도 학습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속성임을 규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실무 영역과 관련된 학습에 동기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곧 대상자들의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열정형' 간호사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촉진 전략으로는 이론과 실무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알아가는 즐거움을 줌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 III 유형은 자신과 자신의 실무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 '자아 성찰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이 학습에 동기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성함으로써 학습의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하였다. Patterson, Crooks와 Lunyk-Child(2002)는 관련 문헌의 종합 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자로

서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자신의 학습수준의 제한점에 대한 사정, 둘째,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평가 셋째, 자아성찰 넷째, 정보의 관리 다섯째, 비판적인 사고, 여섯째, 비판적 평가 능력을 들었다. 즉,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직접 실무 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자가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Towle과 Cottrell(1996) 역시 실무에 대한 자가진단과 비판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아성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실무자교육에 이르기까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Majumdar(1999)도 자기주도 학습에 숙련된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지식과 기술사이의 격차를 잘 인식하고 업무 표준과 자신의 업무수행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실무 능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성찰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자기반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Saylor, 1999). 따라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간호 업무속에서 자신의 현재업무 수행 능력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자아성찰은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IV 유형은 '동료 동반자형'으로 동료들끼리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동기화시켜 주는 것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도 함께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이것이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매우 필요로 되는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nowles(1973) 역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동료와의 협동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Patterson 등(2002)도 자기주

도 학습 상황에서는 동료와의 경쟁보다는 협동이 더욱 격려되어야 함을 강조 한 바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은 개인에게 국한된 협의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그룹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료동반자형'의 간호사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 단위에서 함께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전략의 개발이 유용할 것이다.

위에서 규명된 간호사들의 4가지 자기주도학습 유형은 개인의 주관성을 객관화시켜 강제분류하는 Q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하여 서로 독립된 유형으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위의 유형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관련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Q 진술문 중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한다', '하루 중 내가 공부할 시간을 정해 놓는다',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 등과 같은 학습자의 '자기관리' 또는 '시간관리'와 관련된 문항들이 사전의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해서 의미있는 진술문으로 확인되었으나, 연구 결과에서는 독립된 유형으로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형태가 3교대로 이루어져 매일 또는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Fisher 등(2001)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요인으로 학습자의 '자기관리' 또는 '자기통제'와 관련된 특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바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위의 특성과 관련된 자기주도학습의 속성 규명을 위한 탐구도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현재 지식 수준과 실무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 간호사는 미래의 도전에 대해 준비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은 단기간 내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학부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주관적 구조와 유형을 탐색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하였다. 관련 문헌고찰과 간호사의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 분석하여 최종 추출된 진술문 43개를 간호사 34명에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QUANL Program으로 요인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은 4가지 독립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형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54%였다.

제 I 유형은 '미래 대비형'으로 간호 실무자로서의 전문적 성장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제 II 유형은 '학습 열정형'으로 실무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며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에 대해 강한 흥미를 가짐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이 촉진되는 유형이다.

제 III 유형은 '자아 성찰형'으로 자신과 자신의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제 IV 유형은 '동료 동반자형'으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이 동료와의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도와주고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유형들은 간호사의 효율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미래의 도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무 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간호사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어 간호 교육과 실무에서의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이론 및 모형개발에 실질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간호사의 자기주도학습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실무 간호사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2. 간호사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하는 사회·심리

적 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3. 간호대학생들이 학부 교육에서부터 자기주도 학습에 훈련되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Bonham, L. A. (1989). *Self-directed orientation toward learning: A learning style*. In Hueg B. Long and associates, self-directed learning emerging theory and practice, Norman,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13-42.
- Bower, T. G. R. (1979). *Infant perceptions of the third dimension and object concept development*. In L. B. Cohen & P. Salapatek(Eds), *Infant perception : From sensation to coquition*, N. Y. : Academic. 2.
- Candy, P.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afferella, R. S., & O'Donnell, J. M. (1989). Self-directed learning: A critical paradigm revisited. *Adult Educ*, 37(1), 199-211.
- Choi, G. S.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learner variables to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Seoul.
- Fisher, M., King J., & Tague, G. (2001).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 Today*, 21(7), 516-525.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im, I. G. (1999).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effect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K. (1992). Understanding of Q-methodology for subjectivity research. *The Seoul J. of Nursing*, 6(1), 1-12.
- Kim, W. Y. (2000).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for intrinsic motivation, self-concept, academic achievement & problem solving ability of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 Knowles, M. (1973).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Huston: 1st. ed., Gulf Publishing company.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Toronto, on : The Adult Education company.
- Knowles, M. (1990). *The adult learner: A neglected species*. Huston: 4th. ed., Gulf Publishing company.
- Lunyk-Child, D., Crooks, D., Ellis, P. J., & Oforu, C. (2001). Self-directed learning: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J. Nurs Educ*, 40(3), 116-128.
- Majumdar B. (1999). Empowerment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Canadian Nurse*, 95(6), 37-40.
- Mezirow, J. (1981). A critical theory of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Adult Educ*, 32, 3-27.
- Moore, S., Kuhri, M. Kuhri, N., & Katz, B. (1996). Coping with downsizi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intimacy. *Nurs Manage*, 27(3), 28-30.
- Patterson C., Crooks D., & Lunyk-Child, D. (2002). A new perspective on competencies for self-directed learning. *J. Nurs Educ*, 4(1), 25-31.

- Saylor, C. (1990). Reflected and professional education : Art, science and competency. *Nurse education, 15*(2), 8-11.
- Towle, A., & Cottrell, D. (1996). Self-directed learning. *Arch. Disease Child, 74*(4), 357-359.
- You, G. O. (1997). *A study on the self-direction of adult learners and its demographic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Patterns of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s

Oh, Won-Oa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patterns of nurses. Q methodology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Method:** For the research method, 43 Q-statements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The 43 Q-statements were classified by the

34 participants in the study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PC-QUANL program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esult:** There were 4 different patterns of self-directed learning classified as follows: Nurses in Type I, the Future Provision Type, studied to promote their ow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leadership qualities for the future. Nurses in Type II, the Learning Passion Type, enjoyed learning something new and had a strong learning desire. Nurses in Type III, the Self-reflective Type, continuously evaluated self and their own practice by introspection. Nurses in Type IV, the Accompanying Companion Type, studies with companion support and maintained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rather than competing with each other.

**Conclusion:** This study explains and allows us to underst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s. Thu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theoretical base for the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model in nursing practice.

Key words : Self-directed Learning, Nurse

---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